

제 부모님은요...

어르신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구시노인전문병원과 상담하세요.
담당 전문의료진이 정성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Q: 일시적인 기억을 못하세요.

60대 중반인 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십니다. 며칠 전 일도 잘 기억 못 하시구요. 사람은 다 알아 보시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다시 오늘 할 일과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시더라구요. 이게 치매증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인지, 빨리 병원을 찾아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술도 안하시고 마른편이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또 일을 하는 것이 치매예방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시적인 기억을 못하신 것은 일과성 건망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의 특정한 부위에 일과성 허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다면 당분간 경과를 관찰하셔도 됩니다. 치매증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뇌의 운동을 활발히 해주시는 것이 좋으므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담 _ 신경과 윤성환 과장

Q: 뇌경색 증상 때문에 잘 못 걸으시는지...

서울에서 심장수술(대동맥파열)을 받으셨는데요. 한 1년간은 별탈이 없으셨는데 언젠가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어눌하게 들리더군요. 그리고 걸을 때 왼쪽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걸으면 힘들다고 하시구요. 척추전문병원에서 전신 MR(척추전부)를 촬영하고 진료도 받아 봤는데 척추 증상으로는 별 이상소견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한방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 증상 때문에 걸으실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요. 평소에 약간 멍하게 계시는 것 같아 자식 된 도리로 보고 있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A: 어르신께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 그에 대한 진료(수술)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혈관계 쪽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발병이 되면 뇌의 다른 기관(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주로 편측마비 증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중추신경계와 별도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구분을 하자면 뇌신경계(혈관계)쪽으로 MRI, MRA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을 동시에 쥐고 어르신이 힘을 주게 해보세요. 힘의 차이를 현저히 느낄 수 있으면 편측마비를 의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신경과,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_ 재활의학과 신경호 과장



PRAISE

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



☞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자원봉사자

재가어르신 카네이션 드리기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지난 5월 8일에 뜻 깊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지역 내에 홀로 거주하고 계신 재가어르신 약 80여 곳을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과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던 어르신들도 이날만은 자원봉사자들을 보시곤 손자, 손녀가 온 것처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다 늙은 할매한테 이런 꽃을 며 할라꼬 다노, 뭐 이런 거까지...” 하시던 할머니의 눈가엔 웃음이 한가득 담겨있었습니다. 잔잔한 웃음 속에 핀 주름은 카네이션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꼬박 3일 동안 선물포장을 하며 이번 행사 준비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은 비록 작은 선물과 카네이션이지만 어르신들의 기뻐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다음에도 꼭 행사에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올해 봐왔던 어르신들을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어르신
(老老 케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매주 이 날엔 항상 변함없이 한 어르신이 본원 주간보호센터로 출근하십니다. 보호센터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닙니다. 바로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러 온 어르신,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한성우 자원봉사자이십니다.

선생님께서도 검도, 국선도, 기공등을 수련하셨으며, 현재 한국프로검도 연맹 총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직접 진행하는 기공체조는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기공체조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상식을 준비해 오셔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덕분에 선생님은 다른 어르신 분들에게 ‘어르신을 돌보는 어르신’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연세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봉사를 하시는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한성우 자원봉사자의 기공체조 진행 모습



NEWS